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8년 12월 1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8.(화) 오전 11:4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12. 17.(월)	담당부서	산업정책과 자동차항공과 기획재정담당관 통상정책총괄과 에너지자원정책과
담당과장	이원주 과장(044-203-4210) 박종원 과장(044-203-4320) 이승렬 과장(044-203-5520) 강감찬 과장(044-203-4330) 박재영 과장(044-203-5120)	담 당 자	한종호 사무관(044-203-4212) 박일철 사무관(044-203-4321) 고승진 사무관(044-203-5521) 김용운 사무관(044-203-5622) 박성일 사무관(044-203-5707)

제조업 혁신,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합니다!

-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-

▷ 4개 지역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, '22년까지 2만 6천개 일자리 창출
▷ 4개 주력산업군 맞춤형 고도화 전략, '22년 OECD 수준의 부가가치율(30%) 달성
▷ 수소경제, 항공, 로봇,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도전

【 2019 정부업무보고 개요 】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성윤모)는 **12.18일(화)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**(이하 산업부) **대회의실에서 2019년 「정부업무보고」를 개최**하였다.

○ 이날 보고는 대통령과 산업부 **장·차관, 당·청 인사** 및 **중소·중견기업대표 등**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, '**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**'을 주제로 **약 1시간 40분** 동안 진행되었다.

○ 우선, 산업부 장관이 '**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**'을 보고한 후 **관계공무원, 민간기업 대표**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**토론**이 이어졌다.

○ 특히,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**다른 부처와 달리, 정책고객인 기업대표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**하였으며, **제조업**과 **자동차 부품산업**을 중심으로 산업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.

【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 】

□ 우선,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성장엔진인 **제조업의 당면 위기를 극복**하고 **제조업 혁신**으로 **경제활력을 회복**하기 위하여 『**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**』**을 발표**하였다.

[대책의 특징과 의의]

□ 이번 대책은 **5가지 측면**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.

❶ 대한상의 등 **업계와의 연쇄 간담회**, 산업연구원 등 **국책 연구기관과의 논의, 업종별·기능별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의** 등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상향식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.

❷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**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**되고 있으나, 제조업은 여전히 **한국경제**의 **근간**이자 **경험·노하우가 집약된 혁신의 원천**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**경제활력 회복의 출발점도 제조업**이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
❸ 지역의 **일자리 위기**를 극복하기 위해 **지자체**와 머리를 맞대고 **지역실정에 맞는 방안**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, 앞으로의 산업정책도 **'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산업정책'**에 방점을 두기로 하였다.

❹ 현재의 제조업 활력 둔화는 **누적된 구조적 요인**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단기 처방을 넘어 **단기와 중장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**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.

❺ **규제개혁**과 **리스크 공유, 경쟁과 협업 촉진, 사람을 키우는 일**을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고, **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**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.

□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제조업 혁신전략은 내년에 부문별로 마련될 **세부 실행계획**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다.

[제조업 상황 진단 및 정책 방향]

□ 우리 경제는 **수출 6,000억불, 외국인투자 4년 연속 200억불** 이상 달성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,

○ 자동차, 조선 등 **고용효과가 큰 업종들의 부진**이 심화되면서 **제조업 전체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**하고, 이로 인해 군산, 대불 등 **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**되고 있다.

□ 최근의 제조업 부진은 중국의 급부상, 미-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의 확산, 산업구조 고도화의 지연, 기업가정신의 약화 등과 같은 **누적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**한 결과로 판단된다.

□ 따라서, 이번 대책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**❶단기적인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, ❷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, ❸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**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.

[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]

□ 우선,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**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**될 수 있도록 **관계부처 협의**를 거쳐 **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, 인센티브 패키지, 참여주체들의 역할**을 도출할 예정이다.

□ **전북, 부산·경남, 광주·전남, 대구·경북**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**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**를 추진하여 **'22년까지 2.6만개 이상의 일자리**를 창출할 계획이다.

○ 프로젝트를 **다른 지역, 다른 업종으로도 계속 발굴·확산**해 나갈 것이며, 그 과정에서 **지자체가 중심적인 역할**을 하게 될 것이다.

□ **[전북]**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**지역의 상용차 기반, 재생에너지 사업**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한다.

❶ 전주 - 수소 상용차(버스·트럭) 생산 거점화 추진
❷ 군산 -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추진
❸ 군산 -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지원
❹ 새만금 -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

□ **[부산·경남]** **조선·자동차**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내 주력업종인 **기계산업**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, 지역 **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**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된 산단도 **미래형 산단**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략을 추진한다.

❶ 함양 - 수원시 등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
❷ 부산 - 르노 초소형 전기차(트위지) 위탁생산
❸ 부산 -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및 관련기업 집적화
❹ 창원 -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

□ **[광주·전남]** 전반적인 **지역산업 부진**과 전자 등 주력산업의 **해외이전**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, **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**를 기회로 **첨단전력산업, 공기(空氣) 산업**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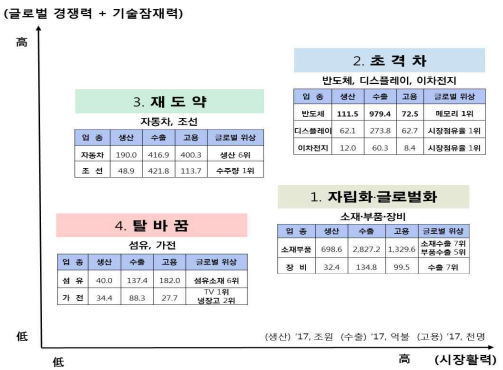
❶ 광주·나주 -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
❷ 광주 - 에어가전 거점화 추진

□ **[대구·경북]** 주력업종인 **전자·섬유**산업의 **해외이전**과 **자동차부품, 철강산업**의 **어려움**으로 지역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, **자율차, 홈케어가전**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**섬유·철강** 등의 **新수요**를 창출한다.

❶ 대구 - 자율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행 추진
❷ 구미 - 홈케어가전 거점화 추진
❸ 포항 - 공공 SOC 투자확대로 중소 강관업체 일감 확보 지원
❹ 대구 - 공공부문 고부가가치 섬유 활용 촉진

[제조업 혁신 전략]

□ **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**을 기준으로 **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**을 추진한다.



❶ **(소재·부품·장비)** '01년 소재·부품 특별법 제정 등 그간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**핵심 소재·부품과 장비**의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아,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**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**를 추진한다.

- 소재·부품·장비 R&D에 매년 1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
- 소재·부품 특별법을 소재·부품·장비 특별법으로 개정
- 인공지능 활용, 실증기반 구축으로 개발기간 단축 및 사업화율 제고

❷ **(반도체·디스플레이·배터리)** **후발국의 추격**과 **핵심 기술·인력 유출 우려**가 **현실화**되고 있어, **적기에 대규모 투자**와 **차세대 기술선점**을 지원하여 추월 불가능한 **초격차 전략**을 추진한다.

- 10년간 120조원(민간투자)을 투자하여 대·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
- Post-OLED,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개발에 2조원 투자
- 국가핵심기술 추가지정, 해외 M&A 신고 의무화로 기술유출 방지

❸ **(자동차·조선)** 협력업체들의 **당면한 위기극복**과 함께 미래 트렌드인 **친환경·스마트화**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하여 **재도약**한다.

- 자동차 중소·중견 협력사에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 등에 3.5조원+ α 지원
- 노후차 교체 지원, 친환경차 생산비중의 대폭 확대(現 1.5% → '22년 10%)
- 자율운항선박, LNG추진선 개발 및 스마트 K-야드 조성(총 1.5조원)

❹ **(섬유·가전)** **4차 산업혁명 기술**을 접목하여 전통산업을 첨단 **스마트 산업**으로 **탈바꿈**한다.

- 동대문 중심으로 주문~생산이 24시간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 구축
-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·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
- 중소·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 지원

□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**미래 신산업에도 과감하게 도전**한다.

❶ **(수소경제)** **수소차**와 **연료전지**를 양대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**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**하고, **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**에 대한 **법적기반을 완비**한다. ※ '19.1월 『수소경제 로드맵』 발표 예정

- '22년까지 수소버스 2천대 등 보급 가속화로 규모의 경제 조기실현
-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생산설비 대폭 확충('18. 3천기/年 → '22. 4만기/年)
- 대규모 수소발전은 '22년까지 부품 자립화 추진
- (단기) 부생·추출수소(Grey 수소) → (중장기) 신재생 수전해(Green 수소)
- 고압·액화 기술개발로 저장·운송 부문도 규모의 경제 달성
- '22년까지 주요거점, 대도시에 수소충전소 310기 설치

❷ **(에너지 신산업)** 우리 기술로 **에너지전환**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**재생에너지 산업**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, **에너지 효율**, **원전해체**, **전력중개사업**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.

- 태양광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, 풍력 4대 부품 경쟁력 제고
- 전동기에 이어 냉동기, 공기압축기에 최저효율기준 도입
-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 및 설립방안 확정(~'19.3월)
-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시장 개설('19.2월)
-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('19.上, 2~3개소)

❸ **(항공산업)** 산업부에 **항공전담 조직**을 설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인 항공산업에 도전한다. **'항공산업 발전전략'**을 내년 중 발표한다.

- 3차원 무인 모빌리티 '개인용 자율항공기' 개발 합류('19년 개발착수)
- 민수용 헬기 국제공동개발('21년), 대형민항기 Risk Sharing Partner 참가

❹ (로봇산업)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산업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**수요확대, 금융지원, 전문기업 육성** 등으로 **시장을 활성화**하고 **'로봇 제품의 일상화'**를 **실현**한다.

- 돌봄・재활로봇 1천대 이상 보급('18~'19, 3개 기초지자체)
- 사업화 촉진을 위한 로봇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('19, 200억원)
- 로봇전문기업 지정·육성('20~, 5년간 100개, 기업당 최대 10억원 지원 추진)

❺ (알키미스트) 매년 산업R&D의 일정부분('19년 100억원)을 미래세대를 위한 **대도전과제(Grand Challenge)**에 투자하여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. 이를 위해 대상과제, 선정방법, 평가방식 등을 담은 **'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전략'**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.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・실패 판정방식을 적용하지 않고, 산업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 알키미스트 : 철로 금을 만들려던 그리스 연금술사(Alchemist)들의 실패한 노력이 현대 화학의 시초가 됨

□ 중소·중견기업을 중심으로 **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**도 추진한다.

❶ 제조업이 밀집된 산단을 중심으로 '22년까지 **스마트공장 3만개**를 보급하고, '22년까지 **10개 산단**을 데이터가 공유되고 신산업이 자유로우며 미래형 교통·에너지·환경 인프라를 갖춘 **스마트 산단**으로 전환한다.

❷ **생산 시스템 혁신을 우리 기술로 달성**할 수 있도록 로봇, 센서, CPS 등 스마트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, 중장기적으로 **스마트공장을 수출산업**으로 육성한다.

❸ 감성가치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·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**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**도 추진한다.

- 대기업 디자인센터 은퇴인력으로 '강소기업 디자인 혁신팀'(800명) 운영
- 중소·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디자인 선도기업으로 육성
- 디자이너들이 생산전문기업(MaaS)을 이용할 있도록 바우처 지원
- 신상품 기획능력을 갖춘 디자인・설계인력을 '22년까지 1천명 양성

□ 제조업체들이 미래형 신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**기업활력 제고법**의 일몰('19.8월)을 연장하여 확대·개편하고, 산단 내 **유휴부동산 리모델링 사업**도 적극 지원한다. 아울러, 내년중 제조업 밸류체인에 대한 **정밀대진단**을 실시하고, 산업연구원에 **산업구조분석센터**를 설치하여 제조업의 건강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.

[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복원]

□ 기업들이 **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**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

❶ 금년 10월에 발굴한 **민간 신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140개**에 대해서는 **전담관**을 지정('18.10월 완료)하여 투자가 성사될 때까지 기업애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해결한다.

❷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**최저임금 인상**과 **근로시간 단축**의 **현장 연착륙**을 유도하고, 환경부담금,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**제조업의 생산부대비용 실태**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한다.

□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**규제샌드박스**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대로 대대적인 **실증사업**을 추진한다.

* '19년 예정사업 : ①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실증, ②무인선, ③유전체 분석 서비스, ④융복합기계, ⑤자동산소공급장치(의료기기) 등

□ 중소→중견→대기업으로 가는 **성장 사다리를** 보강하여 산업의 허리인 **중견기업을 확대**할 계획이다.

❶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과 성장이 자유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내년중 **법·제도적 진입규제**와 **사실상 진입장벽**을 조사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. 특히, **미래차** 분야는 **다양한 플레이어간 경쟁**을 유도하여 글로벌 선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대폭 앞당긴다.

❷ **중소기업 지원제도**를 **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**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안착을 유도하고, 미래의 한국 제조업을 선도할 챔프를 육성하기 위하여 **'글로벌CHAMP 300사업'**을 새로 추진한다.

❸ 기업들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**가업승계 제도**를 개선하고, **중견기업 신진 경영인**과 정부간 소통도 강화한다.

□ 산업 R&D는 **기술**이 꾸준히 **축적**되고 **데이터**가 연결되어 **공유**되며 **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**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.

❶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출연연·대학이 **장기간**(예: 10년) 안정적으로 개발·축적할 수 있도록 **산업기술 거점센터 육성사업**을 추진한다.

❷ 내년에 바이오, 자동차, 소재, 전력 등 4개 분야 **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**을 추진한다. '22년까지 10개 분야로 확대한다.

- **바이오** : 아주대 사업단을 통해 전국 40개 병원, 연인원 5천만명의 전자진료기록을 표준화하여 분산·연계하고, 의료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
- **자동차** : 차량 100만대에 대해 실제 주행환경에서 발생하는 운행데이터, 주행 데이터 축적 → 보험회사 등과 비즈니스모델 개발

❸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른 부문은 **개발**과 **획득**을 병행하는 **'플러스 R&D'**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도입한다.

- 기술의 개발에 앞서 도입 가능성 사전검토시스템 도입
- 기술획득용 M&A를 지원하는 펀드 조성('19. 1,400억원)
- 국내외 기술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기술정보시스템 구축
-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R&D의 전략성 강화

□ 끝으로,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**공학교육**과 **산업현장교육**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.

❶ **디지털 기술**로 무장하고 **'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을 할 줄 아는'**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**공학교육 혁신방안**을 내년중 마련한다.

❷ 공학도들이 **'제조의 미래(Future of Manufacturing)'**를 한눈에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**마이크로 테스트베드**를 주요거점에 설치한다. ('18년 1개→'22년 4개)

❸ 공과대학에 기업연구소와 공장이 입주하는 **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** 조성을 위하여 내년에 「**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**」을 개정한다.

【 자동차부품활력제고방안 】

□ **민관 역량을 총동원**하여 **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을 극복**하기 위한 **유동성 지원·일감확보** 방안과 부품기업들의 **미래차 전환 지원 방향**도 보고하였다. (별도 배포)

【 통상무역 분야 】

□ 아울러, 산업부는 엄중한 대외여건 속에서 **수출 증가세를 유지**하고 **산업혁신을 촉진**하기 위한 **통상무역정책을 추진**할 계획이다.

❶ 내수·수출 초보기업 지원, 무역보험 확대 등을 통해 **2년 연속 수출 6,000억불 달성**을 위해 노력한다.

* 무역보험 지원 확대 : ('18) 145조원 → ('19) 155조원

❷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,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**5년 연속 200억불 이상 투자 유치**를 추진한다.

* 외투 현금지원 : (지원대상) 신기술(157개) → 첨단기술·제품(2,769개) 추가
(지원예산) ('18) 60억원 → ('19) 500억원

□ 통상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**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**한다.

❶ 한-미 산업협력대화, 한-불 신산업기술협력포럼 등을 통해 **자율차·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미국, EU** 등과의 **협력**을 강화한다.

❷ **美 자동차 232조** 등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**면밀하게 대응**하여 우리 기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.

❸ **한-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**으로 서비스 시장 진출 및 투자 보호를 확대한다.

❹ **신남방·신북방** 등 신흥시장을 판매·생산거점化하기 위해 **'19년 RCEP·한-인도 CEPA 개선협상 타결 및 한-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**개시를 추진한다.

* 베트남 기술지원센터 개소, 한-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 출범, 우즈벡 섬유 테크노파크 완공 등 신남방·신북방 산업협력 차질 없이 추진

【 에너지 분야 】

□ **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**한다.

❶ **폭넓은 소통을 기반**으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**「제3차 에너지기본계획('19.1Q)」**을 수립하여 에너지 공급 및 소비, 산업을 포괄하는 **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**한다. 또한, **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추가 감축방안**을 담은 **「제9차 전력수급계획('19.下)」**도 마련한다.

❷ **에너지수요관리**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**국가에너지 효율혁신전략**을 마련한다. 이를 통해 개별 제품단위의 효율향상을 넘어 **제로에너지건물, 스마트에너지산단·시티** 등 **시스템 단위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**을 추진한다.

❸ 내년에는 재생에너지 3020의 본격적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**계획입지제도** 도입, **주민참여형·이익공유형** 설치 확대,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·풍력의 **보급**과 연계하여 **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**한다.

*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목표 : ('18) 1.74GW → ('19) 2.4GW(38%↑)

❹ 원전 분야 **중소 협력업체 지원***, **해외 수주 노력** 등 원전산업 **핵심 생태계 유지**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, **사용후핵연료 재검토·공론화 위원회**('19.1 발족) 등 **사회적 논의**를 통한 **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**의 합리적 추진토대를 마련한다.

*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('18.11 개소), 에너지전환펀드 조성('19.上), 안전투자 확대(1.9조원, ~'22)

❺ 내년 상반기 중으로 **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조속히 완료**하고,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**'중장기 개편 로드맵'도 내년 말까지 수립**한다.

❻ 열수송관, 도시가스 배관, 송유관 등 **장기사용 에너지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조속히 완료하고 취약구간 시설 보수·교체**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한편, **안전관리 체계도 재정비**한다. 끝.

[첨부]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

【「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」 핵심내용 】

1 지역산업 생태계 활력 회복

① **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** → **유형별 인센티브 패키지** 등 마련('19.1Q)

② **4개 지역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** → **'22년까지 2.6만개 일자리 창출**

2 제조업 혁신 전략

① **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: 4대 품목군별 맞춤형 전략 제시**

- (**소재부품장비: 자립화·글로벌화**) **매년1조원** 투자, 「소재부품특별법」→「**소재부품장비특별법**」 개정('19년)
- (**반도체·DP·배터리: 초격차**) 대·중소 상생형 **반도체 특화 클러스터** 조성(10년간 120조원 민간투자)
  Post-OLED,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개발에 **2조원** 투자
  국가핵심기술 추가지정, **해외 M&A 신고 의무화**로 기술유출 방지
- (**자동차·조선**) 자동차 중소·중견 협력사에 **신규자금 3.5조원+α** 지원
  노후차 교체 지원, **친환경차 생산비중** 대폭 확대(現 1.5% → **'22년 10%**)
- (**섬유·가전**) 동대문 중심의 **디지털 패션 생태계** 구축('19년~, 71억원)
  중소·중견기업 전용 **빅데이터센터** 구축 및 신제품 실증 지원('19~'22, 262억원)

② **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도전**

- (**수소경제**) **수소차 '22. 6.5만대**, **버스 '22. 2천대** 보급, **충전소 '22. 310개소**,
  연료전지 스택 생산설비 '22. 4만기/年, '22년까지 **대규모 발전소 부품 자립화**
  → **'19.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**
- (**에너지신산업**) 태양광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, 풍력 4대 부품 경쟁력 제고
  냉동기, 공기압축기 최저효율기준 도입('19년), **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**('19.上, 2~3개)
- (**항공**) 산업부내 **항공전담 조직** 설치, **발전전략** 발표('19년), '**개인용 자율항공기**' 개발 착수('19년)
- (**로봇**) **돌봄·재활로봇 1천대**이상 보급('18~'19), **로봇전문기업** 지정·육성('20~, 5년간 100개)
- (**도전적 R&D**) '**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*** **추진전략**' **마련** ('19.上)
  *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연구과정에서 **파괴적 기술**이 도출되고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연구과제 지원

③ **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** : '22년까지 **스마트공장 3만개, 스마트 산단 10개**('19년 2개),
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 추진

④ **미래형 신사업 구조로의 신속한 고도화**

- **기활법 전면개정**(대상·인센티브 확대), **일몰연장**, 산단 **휴폐업 리모델링사업** 신설(800억), 주력산업 **정밀대진단**

3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복원

① **기업의 투자애로 적극 해소** : **제조업 생산부대비용** 실태 정기적 조사·공표

② **규제샌드박스** : 시행('19.1월) 즉시 **대대적인 실증사업**, **신산업 규제혁파 로드맵** 수립('19.上)

③ **성장 사다리 보강** : **제조업 혁신창업 플랫폼** 구축, '**글로벌CHAMP 300사업**'('19.上 예타),
법·제도적 진입규제와 **사실상의 진입장벽** 조사·발굴('19.上)

④ **축적과 속도가 공존하는 R&D 지원체계**

- '**산업기술 거점센터 육성사업**', **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** 추진('19. 4개 → '22. 10개)
- 개발·획득 병행의 '**플러스 R&D**' 도입

⑤ **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 대대적 개편** : **공학교육 혁신방안** 마련('19년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한종호 사무관(☎ 044-203-4212,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), 자동차항공과 박일철 사무관(☎ 044-203-4321,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), 기획재정담당관 고승진 사무관(☎ 044-203-5521, 행사 전반), 통상정책총괄과 김용운 사무관(☎ 044-203-5622, 통상 · 무역), 에너지자원정책과 박성일 사무관(☎ 044-203-5707, 에너지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